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1-1집
한국이슬람학회, 2011, 121-140

아랍어 사전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 초기 편찬 방식을 중심으로

윤은경*

◁ 목 차 ▷

- I. 서론
- II. 아랍어 사전의 기원
- III. 아랍어 사전의 초기 편찬 방식
- IV. 결론

*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강사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rabic Dictionaries - focused on the early method of arrangement

Yun, Eun- Kyeong
HUFS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development of Arabic dictionaries focused on the early method of arrangement. In the compilation of dictionaries, the Arab scholars were very remarkable. The great interest in codification to make Arabic language a capable and uniform instrument of communication arose first in relation to Islam. An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textual integrity and correct pronunciation of the Arabic language in the Qur'ān, the first linguistic studies were started and they were systematized by Al-khalil Ibn 'Ahmad who was considered as one of the greatest Arab linguists.

Al-khalil had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compilations of the Arabic dictionaries. For succeeding to Al- Khalil's method, Al- Azhari compiled 『Tahdhīb al- lughah』 and it is characterized by the permutational or anagrammatical arrangement. In second step, Ibn Durayd, and Ibn Faris composed 『Al- jamharah』 and 『Al- maqāyis』 by ordinary alphabetical order and anagrammatical arrangement. There was the third step of the method of Arabic dictionary compilation named the rhyme arrangement. The representative of this step is al-Jawhari's 『Al-ṣaḥāḥ』, and Ibn Manẓūr's 『Lisān al-‘arab』. These dictionaries drove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Arabic lexicography and built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efficient dictionaries' compilation.

※ Key Words : Arabic Lexicography, Dictionary, Makhraj, Anagrammatic Arrangement, Rhyme Arrangement

I. 서론

언어란 일반적으로 기록의 단계 이전에 발음의 단계를 거치게 마련으로, 문자화 되지 않더라도 1차적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발음되어지는데, 이것이 곧 언어의 초기 단계이다. 말하는 사람들 간에 이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언어생활은 인간의 사고 및 행동의 도구로서, 사고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인간은 지능과 암기력 등의 한계로 인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언어학적 재산들을 기억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 단어들의 의미나 쓰임새 등에 대한 참고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사전’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사전이 인간지식의 저장고로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전의 편찬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전’이라는 것은 매우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전편찬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매우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사전의 편찬에 있어 어휘의 배열을 알파벳순에 의거하는 방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언어의 사전 편찬사를 돌아볼 때, 과거에는 그렇게 배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사전편찬체계가 정착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아랍어사전의 출현과 발달단계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이 명확히 나타난다.

아랍어사전의 초기단계는 제한된 범위의 어휘들을 불분명한 체계로 배열한 형태였다. 그 뒤 어휘들을 조음점(Makhrāj)에 의거 후두음부터 시작하는 알파벳순에 따라 순환 식으로 배열한 사전이 등장하였고, 이어서 마지막 자음 즉 각운에 따라 단어를 배열한 사전이 나타났으며, 현재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단어의 첫체 자음에 의거한 편찬방식도 소수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본 소고에서는 아랍어 사전의 발달 과정에 대해 초기 편찬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의 순서는 1장 서론을 포함하여 2장에서는 아랍어 사전의 기원, 3장에서는 아랍어 사전의 초기 편찬 방식에 따라 각 단계별 대표적 사전의 특징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제1단계, ‘알 칼릴 방식’이라고 불리는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순과 순환 식 단어 배열방식의 대표적 사전인 『키타브 알 아인(Kitāb al-‘ayn)』, 『타흐디브 알 루가(Tahdhīb Al-lughah)』, 제2단계, 일반적인 알파벳순에 따른 순환 식 단어배열 방식의 대표적 사전인 『알 잠하라

(Al-jamharah)』, 『알 마까이스(Al-maqāyis)』 제3단계, 각운 식 단어배열 방식의 대표적 사전인 『알 사하흐(Al-ṣaḥāḥ)』, 『리산 알 아랍(Lisān Al-‘arab)』에 이르는 순서로 논하고자 한다.

II. 아랍어 사전의 기원

중세아랍학자들은 최초의 아랍문법학자가 아부 알 아스와드 알 두왈리(Abū Al-‘aswad Al-duwalli, ?-688)라는데 동의하고 있는데, 그는 구전된 교리로써 문법적인 지식을 후배들에게 교육시켰던 인물이다. 그에 의해서 시작된 학문은 ‘문법(Nahw)’과 ‘사전학(Lughah)’으로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은 명확히 한정되었다. 사전편찬학자(Lughawi)는 여러 단어들과 표현들을 검토, 어휘록과 사전에 기록함으로써 순수한 아랍어의 전수에 기여하였고, 문법학자(Nahwi)는 그 자료가 말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규칙을 설정해야 했다.

대개 언어학의 발달과정에서는 문법이 사전 편찬 작업에 선행하기 마련이지만, 아랍어에서는 문법과 사전학이 확실한 구분 없이 함께 발달해 온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학문분야에서의 주요 저서는 8세기 후반에 나타났는데, 사전학에서는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Al-khalil Ibn ‘Aḥmad, 718-791)의 『키탱 알 아인』, 문법 분야에서는 시바와이히(Sibawaihi, 765-796)의 『알 키탱(Al-Kitāb)』이다. 이 두 저서의 등장으로 인해 아랍어 문법과 사전학은 명확히 분리되었으며, 본격적인 문헌학적 연구 활동들의 시기가 전개 되었다. 아랍에서 사전편찬학은 주로 ‘꾸란(Quran)’이나 ‘하디스(Hadith)’, 초기이슬람시대의 시가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모호한 단어들에 대한 학문이었다. 아랍인들이 사전의 형태로 언어학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한 곳에 기록한 시기는 압바스 시대(서기 750년경)에 이르러서이다. 고대 아랍 언어학자들은 언어학적 자료의 수집에 있어 시간적인 기준과 공간적인 기준을 병행하였는데, 시간적으로는 자힐리야 시대와 헤지라 력 2세기 중반까지의 문학 언어의 기록으로 국한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내의 여러 정착민부족을 제외한 유목민들의 언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이 언어학적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하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A.G. Chejne 1969, 43).

1단계 : 언어학자가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을 들으면, 이것들을 관용적인 것(Al-Samā'ah)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체계나 방식이 없이 들리는 데로 기록하는 것이다.

2단계 : 한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을 한 곳에다 기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술된 책들은 대개 그 주제 별로 명명된다. 이러한 어휘 록의 예는 아부 자이드('Abū Zayd, 737-830)가 비(雨)에 관련된 단어를 모아 기록한 『키타브 알 마따르(Kitāb al-Maṭār)』, 알 아스마이(Al-'Asma'i, 740-831)가 낙타의 습성, 울음소리 등에 관련된 단어들을 모아 기록한 『키타브 알 이블(Kitāb al-'Ibl)』 등이다.

3단계 : 특정단어의 의미를 알고자하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편찬방식에 의거 '사전'을 편찬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초로 아랍어 일반 사전을 저술한 학자는 『키타브 알 아인』이라는 사전을 쓴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Al-khalīl Ibn 'Aḥmad)이다.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¹⁾가 8세기 후반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키타브 알 아인』은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 순서와 순환 식 단어 배열방식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후 사전편찬방식의 근간이 되었음과 동시에 이를 필두로 모방과 수정의 과정을 거친 많은 사전들의 연구 편찬이 시작되었다.

Ⅲ. 아랍어 사전의 초기 편찬 방식

1. 조음점에 따른 알파벳순의 순환 식 단어 배열

알 칼릴 시대의 언어학자들은 소책자나 주제별 어휘 록의 형식으로 한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을 모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 록에 수록된 단어들은 일정한 방식에 의거하지 않고 되는대로 배열되었으므로 사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정리 방식에 있어 일관된 체계의 정립과 사전을 찾

1) 이하 알 칼릴로 부르기로 한다.

아보는데 용이한 방식으로 편찬된 사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부응하여 나타난 최초의 사전이 『키탃 알 아인』이다.

알 칼릴은 아랍어의 보편적인 알파벳순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체계를 고안해 내었다. 그는 조음점에 따라 알파벳을 배열하였는데 그 순서는 목구멍에서 가장 가까운 소리 즉 후두음인 ‘ain, ḥā’, ḥā’, khā’, ghain으로 시작하여 목젢소리인 qāf, kāf, 입의 입구(shajr)에서 조음되는 jim, shīm, ḍāḍ, 혀의 끝부분(‘asal)에서 조음되는 ṣād, sīm, zay, tā’, rā’, tā’, 치경음(lathawiyah)인 zā’, thā’, dhāl, 혀의 중심부소리(dhalaiyah)인 lām, nūn, 입술소리인 fā’, bā’, mīm, 끝으로 호기(呼氣)의 막힘이 없는 소리(hawā’iyah)인 wāw, ‘alif, yā’ 등의 순이다.²⁾

최초의 아랍어 사전인 『키탃 알 아인』은, 비록 혼란스럽고 일관되지 못한 정돈 방식으로 인해 많은 비평들에 마주치긴 하였지만, 이후 아랍어 사전 편찬 활동에서 많은 영향력을 남겼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사전으로 인해 많은 후대학자들이 자음배열의 특정체계를 사용한, 사전들을 편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많은 사전편찬학자들이 조음점에 의거한 배열방식(al-Tartīb al-Makhrājī)을 고수하였으며, 어근에 따라 단어를 배열하는 것은 공통적인 아랍어 사전 편찬방식으로 정착되었다.³⁾

『키탃 알 아인』의 등장은 이후 아랍 학자들이 다양한 사전을 편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전들을 편찬 방식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알 칼릴 방식’이라고 불리는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순과 순환 식 단어 배열방식으로서 대표적 사전은 아부 만수르 무함마드 알 아즈하리 알 하라위(‘Abū Maṣṣūr Muḥammad al-‘azharī al-Harāwī, 895-981)의 『타흐딕 알 루가(Tahdhīb al-Lughah)』가 있다.

1) 『타흐딕 알 루가(Tahdhīb al-Lughah)』

『타흐딕 알 루가(Tahdhīb al-Lughah)』의 저자는 아부 만수르 무함마드 알

2) 이외 『키탃 알 아인』의 편찬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은경, “아랍어 사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 2010, pp 269- 274 참조

3)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나타난 일부 사전은 어근이 아닌 발음에 의거하여 단어배열이 이루어진 것도 있다. 그 예로는 알 마르자(‘al-Marja’)와 ‘알 라이드(al-Rā’id)’등이 있다.

아즈하리 알 하라위(Abū Maṣṣūr Muḥamm ad Al-'azharī Al-harāwī, 895-981)⁴⁾이다. 그는 쿠라산의 헤라출생으로, 바그다드로 이주하여 어학, 문학, 법률학 및 종교과학을 공부하였으며, 특히 문헌학의 대가로 꼽힌다. 아랍어 연구를 위해 유목민들 사이에서 유랑생활을 하며, 그들이 말하는 순수아랍어의 수집에 노력한 사람으로 알려진다(Muḥammad 'Aḥmad 'Abū Al-faraj 1961, 33-34).

알 아즈하리는 아랍어가 꾸란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존재이므로 일반인에 대한 아랍어 교육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선대 언어학자들의 저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교정하고, 보다 정확한 아랍어를 기록한 사전의 편찬을 시도하였다. 그가 자신의 사전을 “타흐딕 알 루기” 즉 “아랍어의 정수”라는 의미로 명명한 것은 이전의 모든 언어학 서적들의 정확한 자료만을 엄선했고, 따라서 자신의 사전이 가장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심증에서였다(Rāmīl Ya'qūb 1995, 57-58).

그가 참고로 하였던 주요 서적은 아부 암르 샴미르 이븐 함다와이히 알 하라위(Abū 'Amr Shamīr 'Ibn Ḥamdawaihi Al-Harawi)의 『키타프 알 짐(Kitāb al-Jīm)』이다. 알 아즈하리는 자신의 사전에서 보다 정확한 내용 들 만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자음들의 분류에서 알 칼릴의 방식을 따랐다. 알 아즈하리가 사용한 사전편찬방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Huṣayn Naṣār 1998, 259-271).

- ① 단어의 배열에 있어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순서와 순환 식 배열법을 따랐다.
- ② 사전을 절(Faṣl)과 권(Kitab)으로 분류하였고, 각각 자음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각 키타프를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이중 약동사, 2자근, 3자근 약동사, 3자근 강동사, 4자근, 5자근에 대해 설명하였다.
- ③ 『키타프 알 아인』의 내용들 중 많은 부분을 변형 없이 그대로 옮겨놓았고, 이전의 언어학자들의 의견을 많이 인용하였다. 또한 이전의 사전들에 없는 자료들은 알 아즈하리 자신이 직접 유목민과의 생활 속에서 수집하여 설명해 놓았다.
- ④ 나라이름과 지역, 강 등 고유명사에 대한 기록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이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자료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 ⑤ 사용되지 않는 어휘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전의 사전들에서 누락된

4) 이하 알 아즈하리로 부르기로 한다.

사용되는 어휘들을 설명하였다.

- ⑥ 꾸란과 하디스의 용례설명과 희귀한 용어(Nawādir)의 설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⑦ 저자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표명하였는데, 자신의 선배들의 의견을 설명하고 난 뒤 “나의 생각으로는...”이라든가, “그것에 대하여는 유목아랍인들로부터 들어본 바가 없다” 등으로 주해를 달았다.

『타흐딕 알 루가』는 『키탃 알 아인』의 내용에 인용구와 용례들이 첨가된, 그것의 확대본이라고 볼 수 있다. 알 아즈하리가 거의 모든 면에서 알 칼릴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은 알 칼릴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타흐딕 알 루가』의 문제점은 역시 『키탃 알 아인』과 마찬가지로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순과 순환 식 단어 배열 방식의 난해함에 있다. 사전을 찾아보는 사람이 한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사전의 용도 면에서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전은 단어의 설명에서 많은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고, 이전 학자들의 사전, 특히 『키탃 알 아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서 비롯되는 편견들이 나타난다.

2. 일반적 알파벳순의 순환 식 단어배열

알 칼릴의 『키탃 알 아인』은 최초의 아랍어 사전으로서 이후 본격적인 아랍어 사전학 발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편찬방식상의 난해함은 참고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손상시키게 된 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알 칼릴을 승계하고 모방한 학자들의 사전까지 비판을 받게 된 원인이었다. 9세기 후반에 들어 아랍문헌학분야에서 바스라학파의 선두격인 알 칼릴에 대한 숭배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용상의 편의와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 기존의 사전편찬방식을 수정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단어 배열 방식에 있어 『키탃 알 아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알파벳순으로 사전을 편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있었다. 그가 이븐 두라이드(Ibn Durayd, 837-934)로서 일반적인 알파벳순에 의거 단어를 순환식으로 배열한 절충방식을 이용, 『알 잠하라(al-Jamharah)』를 편찬한 학자

이다. 이 사전편찬방식은 이븐 파리스(Ibn Fāris, 941-1004)가 『알 무즈말(al-Mujmal)』과 『알 마까이스(al-Maqāyis)』라는 사전에서 전승하였다. 『알 잠하라』의 일반적 알파벳순에 따른 순환 식 단어배열은 아랍어사전학의 발전과정에서 일보 전진된 단계로 간주된다.

1) 『알 잠하라(al-Jamharah)』

『알 잠하라』의 저자는 아부 바크르 무함마드 이븐 알-하산 이븐 두라이드(Abū Bakr Muḥammad Ibn Al-ḥasan Ibn Durayd, 837-934)이다⁵⁾. 그는 아라비아반도 남부의 오만에서 출생하여 바스라에서 문헌학 교육을 받았으나 헤지라 력 257년 경 바스라의 니그로 반란으로 인해 다시 오만으로 피신하였다. 그 후 얼마간 아라비아 남부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막아랍인들의 순수아랍어를 연구하였고, 페르시아로 이주, 『알 잠하라』를 저술하였다. 그는 언어학과 문학의 대가로서 “가장 학식 있는 시인”, “가장 시적인 학자”로 불리었고, 뛰어난 암기력을 가진 사람으로 전해진다(Rāmīl Ya‘qūb 1995, 78).

알 칼릴이 단어의 순환 식 배열로 아랍어의 모든 어휘를 기록하려고 노력한 학자라면, 이븐 두라이드는 같은 방식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인들 사이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선별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유에서 자신의 사전을 『알 잠하라』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븐 두라이드는 아랍인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모아 사전을 편찬하고자 하였고, 일반적인 알파벳순에 따라 단어들의 어근을 배열하였다. 이외 이븐 두라이드가 『알 잠하라』에서 사용한 사전 편찬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āmīl Ya‘qūb 1995, 81 -82).

- ① 사전을 여러 권으로 분리하지는 않았고 /hamzah/, /bā‘/, /tā‘/ 등의 순으로 각 자음에 따라 분류하여 권(Kitab)으로 명명하였으며, 단어의 배열은 알 칼릴과 같은 순환 식 배열법을 따랐다. 또한 각 절에서는 단어의 구조에 따라 2자근, 3자근, 4자근, 5자근 별로 분류하였는데, 2자근에서는 먼저 중복되지 않은 2자근 형태를 설명하고 다음에 중복 2자근, 반복 4자근, 이중 약 동사 등을 설명하였다. 3자근의 경우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반복3자근과 간약, 말약 동사로 분류 설명하였고, 4자근에서는 동일한 자음 2개가 포함된 어형들과 일반

5) 이하 이븐 두라이드로 부르기로 한다.

적인 4자근형태들을 함께 설명하였다. 5자근에서는 어떤 순서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저가 자신의 임의대로 어형들을 기록하였는데, 이 모든 형태들에서 일반적인 알파벳순으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만일 /qu'ūd/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이 단어의 어근 /qa'ada/에서 /dāl/에 관한 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알파벳 순서상 /dāl/은 /qāf/나 /'ayn/보다 앞에 오기 때문이다.

- ② /hamzah/의 경우 어떤 때는 약 자음으로 취급하고 또 어떤 때는 강 자음으로 다루었다.
- ③ 여성형 어미 '타 마르부타(tā' marbūtah)'가 원래 /ha'/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간주하여 /ḥabbah/와 /'affah/ 두 단어를 /ḥababaha/, /'afafaha/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 ④ 이븐 두라이드는 “파생”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사전에서도 단어들의 파생형 의미에 관한 임의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 ⑤ 희귀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많고 특히 3자근 어형설명 뒷부분에 함자가 포함된 희귀용어들(Al-nawādir fi al-hamzah)이라는 장을 추가해 놓았다.
- ⑥ /lu'bah/, /rashan/등의 단어들을 /la'aba/, /rashana/부분에서 각각 기록하였으면서도 희귀한 용어들에 대한 장에서 다시 기록하였던 것처럼, 설명부분에서 중복 기록된 단어들이 많다.
- ⑦ 『알 잠하라』는 문체, 설명방식, 용례의 설명 면에서 『키타프 알 아인』과 거의 비슷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아랍어사전학사에서 볼 때 후대학자들이 전대학자들의 사전에 의존,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Muḥammad 'Aḥmad 'Abū Al-faraj 1961, 27-31).

이븐 두라이드는 『알 잠하라』를 편찬하면서 아랍인들의 언어들 중 생소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록을 위해 노력하였고, 『키타프 알 아인』에 의존하였지만 그 사전 보다 훨씬 나은 사전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알 잠하라』는 설명부분의 중복된 단어 기록, 여성 형 어미 '타 마르부타'의 잘못된 분류로 인하여 실용적이지 못한 사전으로 평가된다.

2) 『알 마까이스(al-Maqāyīs)』

『알 마까이스』의 저자는 아흐마드 이븐 파리스 이븐 자카리야(Aḥmad Ibn Fāris Ibn Zakariyā, 941-1004)이다⁶⁾. 문학과 언어학을 전공하였던 그는 원래 까즈윈 - 지금의 이란 북부 지역 - 태생으로, 오랫동안 함단 - 아프가니스탄 북서지

역 -에서 거주하였고 알 라이 - 이란 북부지역 -에서 타계했다. 이븐 파리스는 문헌학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한 인물로, 사전편찬학이 과학적으로 다루어져야하며 하나의 ‘피끄흐(Fiqh)’로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븐 파리스가 『알 마까이스』를 저술한 목적은 모든 어형들의 어원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이를 '알 우술(Al-'usūl)' 또는 '알 마까이스'라고 불렀다. 그가 『알 마까이스』의 편찬을 위하여 참고한 서적들은 알 칼릴의 『키탃 알 아인』, 이븐 시키투(Ibn Sikit, 803-859)의 『이스라흐 알 만띠ḥ(Islāḥ al-Mantiq)』, 이븐 두라이드의 『알 잠하라』, 아부 우바이드(Abū 'Ubaid, 773-837)의 『가립 알 무산나프(Gharib al-Mussannaf)』, 『가립 알 하디스(Gharib al-ḥadith)』 등이다. 이를 토대로 사전을 기술하면서 사용한 방식들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 진다 (Ḥusayn Naṣār 1998, 88-92).

- ① 사전을 각 자음별로 나누어 ‘키탃’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각 키탃은 중복 2자근, 3자근, 3자음 이상의 자근에 관한 장 등 세 개의 장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모든 자료들을 단어의 어근에 따라 일반적인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단어들은 각 ‘키탃’에서 해당자음과 그 뒤에 오는 자음으로 이루어진 어형들의 순으로 기록했다. 예를 들어 ‘키탃 알 짐’의 중복2자근에 대한 장에서 기록된 자료들을 보면,

“jahh-jk~~kh~~h-jadd-jad~~hdh~~-jarr-jazz-jass-jash~~sh~~-jaṣṣ-jadd-jatt-jazz-ja'a'-jaff-jall-jamm-jann-jahh-jaww-ja'a'-jabb-jath~~th~~”의 식으로 되어있다.
- ② 어원적 의미와 자음전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자료들의 파생적 의미들을 나열하였다.
- ③ 설명부분에서 상당히 요약된 간결체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인용한 학자들 즉 알 칼릴, 이븐 두라이드, 이븐 시키투, 아부 우바이드 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표제어만 기록하고 그 설명이 빠진 것도 있으며, 표제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의미를 설명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Al-dāl wa al-~~thā~~' kalimah wāḥidah wa huwa al-'itr al-~~kha~~fif(dal과 ~~thā~~'가 한 단어이며 연한 향수를 말한다.)”라고 설명만이 되어 있는 것은 /Al-dath/라는 단어를 의도한 것이다.
- ④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조사하여 기록하면서도 정확하고 변칙적이지 않은 것

6) 이하 이븐 파리스로 부르기로 한다.

을 선별하였고, 아랍어 화된 단어(Al-Mu'arrab)와 음운 대체 어(Al-Mubdal al-ḥurūf)에 대해 언급하였다.

- ⑤ 단어의 실제 의미와 은유, 비유적인 표현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dhawīqa”의 설명에서는,

“Al-dhāl wa al-wāw wa al-qāf 'asl wāhid wa huwa 'iktiyār al-shay' min jihat al-ṭa'am thuma yushtaqa majāzan fa yuqāl dhaqtu al-ma'kūl ' athawaquh dhawqan wa dhaqtu mā 'inda fulān 'ikhṭarabtuh(dhāl과 wāw, qāf가 한 어근으로 음식에서 무엇을 고르다 -맛보다-의 뜻이다. 또한 비유적으로는 시험해보다의 의미로 쓰인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알 마까이스』는 단어의 정확한 어원적 의미를 밝히고자 편찬된 사전이지만, 단어배열방식상의 문제점은 여전히 비평의 대상이다. 또한 이븐 파리스는 어근에 따른 단어의 분류와 의미설명부분을 자신의 임의대로 기록하였고, 자신이 참고로 인용한 내용에 대하여 원저자의 주석을 생략하였다. 이로 인해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어려운 부분과 어휘의 설명을 빠뜨리는 등의 오점을 남겼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븐 파리스의 『알 마까이스』는 또 한편의 그의 저서 『알 무즈말』과 더불어 아랍어사전편찬방식에 있어 기존의 알 칼릴의 순환 식 단어배열과 장별 정돈 법(Tanzīm al-'Abwāb)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였고, 어원학적 의미와 합성(al-Naḥt)의 방법을 소개하는데 기여한 사전으로 간주된다.

3. 각운 식 단어배열 방식

아랍어사전편찬분야에서 8세기 『키탃 알 아인』이 등장한 이후, 순환 식 단어배열 방법은 약 200 여 년간 일반적인 사전편찬방식으로 고수되어 왔으며, 이에 대응할만한 새로운 방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알 칼릴과 동시대인이었던 아부 암르 알 샤야바니(Abū 'Amr Al-shaybānī, 713-821)는 다른 방식의 모색을 위해 『키탃 알 짐』⁷⁾에서 오늘날과 같은 알파벳순에 의거한 단어배열법을 시도하였지만,

7) 라일 아콕에 따르면 이것 외에 알 이맘 알 부카리(Al-'imām Al-bukhārī, 810-870)가 그의 저서 “Al-ta'rikh al-kabir”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배열하는 데에 있어 일반적인 알파벳순을 이용하였는데, 이 방식은 알 자우하리 시대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이용하였는데, 이 방식은 알 자우하리 시대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현재에는 기타 사전편찬방식들을 압도하는 주요방식으로 되었다.

이후 편찬된 사전들은 그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Ramīl Ya'qūb 1995, 100).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알 마까이스』에서 새로운 사전편찬방식이 시도되었는데 그와 때를 같이하여 알 자우하리(Al-Jawharī, ? -1003)는 『알 사하흐(Al-ṣaḥāḥ)』라는 사전에서 단어를 어근의 마지막 자음에 따라 배열하는 이른바 ‘각운 식 배열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 냈다.

알 자우하리가 기존의 사전 편찬 방식들을 기피하고 각운 식 단어배열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현대아랍사전학자인 라밀 야으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Ramīl Ya'qūb 1995, 102- 104).

첫째, 당대의 천재이며 대가라고 인식되었던 알 자우하리가 누군가를 모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새 방식을 정립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아랍어는 각운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언어이다. 특히 당시 문학 분야에서는 운율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산문이 발달하였으므로, 문학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알 자우하리가 각운 식 배열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아랍어 파생 형태에서 /fa'al/ 형태를 기본으로 삼을 경우 /lam/의 위치에 오는 자음은 형태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에 파생형들의 변화 형태를 살펴보면, /fu'al/, /fi'al/, /fa'al/, /fu'ul/, /fū'il/, /mif'al/, /fa'a'al/, /'inf'a'al/, /'ift'a'al/, /tafa'al/등과 같이 /lam/의 위치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운율을 중시하는 ‘까시다(Qasīdah)’의 각운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단어들 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 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근의 마지막 자음에 따라 단어를 배열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나 단어를 찾는 작업을 용이 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알 자우하리는 단어의 각운 식 배열법을 창안해 내었는데 이를 필두로 이른 만주르의 『리산 알 아랍』 과 알 피루자바디의 『알 까무스 알 무히뜨』 등의 사전이 출현하게 되었다.

1) 『알 사하흐(Al-ṣaḥāḥ)』

『알 사하흐』의 저자 ‘아부 나스르 이스마일 알 파라비 알자우라히(Abū Naṣr 'Ismā'il al-Farābī al-Jawharī, ?-1003)⁸⁾’는 터키의 피랍(Ferāb, 현재의 Otrab)에서 출생하였다. 정착된 생활보다 여행하는 것을 즐겼던 그는 바그다드로 유학하여

외삼촌인 아부 이브라힘 이쓰하끄 본 이브라힘 알 파라비에게서 문헌학을 배웠으며, 그 뒤 달필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또한 사전편찬학자가 되었다. 아랍어 연구를 위해 ‘무다르’부족, ‘라비아’부족의 거주지 및 히자즈 지역 등을 여행한 후 쿠라산으로 돌아와서 『알 사하흐』를 저술하였다. 이 사전의 원래 이름은 ‘Taj al-Lughah wa ṣaḥaḥ al-‘Arabiyyah’로 칭하였다고 전해진다(J.A. Haywood 1965, 69-70).

알 자우하리는 자신의 사전에서 구전 교리들과 관용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토대로, 정확한 단어들과 순수 유목아랍인들이 사용하는 말만을 기록하였다. 사전의 문체는 매우 간결한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전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알 사하흐』는 아랍문헌학에 미숙한 초보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사전으로 간주되었으며 단일한 체계의 일관성을 보여 준 최초의 아랍어사전으로서, 『알 까무스 알 무히뜨』가 출현하기까지 약 300년간 아랍어표준사전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대 아랍 언어학자들이 전하는 여러 저서들을 살펴볼 때, 『알 사하흐』의 편찬 방식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진다.

- ① 단어들을 현대식 알파벳순에 의거, 그 자근들에 따라 배열하였다. 사전은 각 자음별로 분류, ‘바브(Bāb)’로 명기하고, 각 장을 다시 28개의 절(faṣl)로 분류하였는데, 저자는 자음의 순서에서 ‘waw’를 ‘nun’과 ‘ha’ 사이에 넣었으며 ‘waw’와 ‘ya’를 하나의 장으로 만들었다. 각 절에서 단어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어근에 따라 배열하였다. 따라서 “Asad”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어파생에서 형태변화를 하지 않는 각운을 기준으로 하여, 이 단어의 각운인 ‘dal’의 장을 찾아 함자의 절(faṣl al-hamzah)을 보아야 한다.
- ② 이전에 편찬된 사전들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모음부호와 오기들을 수정하여, 정확한 모음부호를 명기하였다. 예를 들어 단어의 뒤에 “bi l-damm”라고 쓰여 있으면 담마로 발음하라는 의미이고, “bi t-tashdid”라고 하면 두 번째 자음이 중복되었음을 뜻하며, “bi l-tahrik”은 두 번째 자음이 모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 외 /faʿ/형을 나타내기 위해 “bi l-faṭḥ”라는 표현을 썼으며, /faʿal/형을 나타내기 위해 “bi l-faṭḥ wa l-tahrik”라는 표현을 썼다. 또한 동사와 그 동사의 마스다르를 사용하는 강조용법도 설명하고 있다.
- ③ 희귀한 용어, 아랍어 화 된 단어, 신조어(Muwallad), 상용어(Mushtarak), 상

8) 이하 알 자우하리로 부르기로 한다.

반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ʿAḍāḍ)를 설명하였다.

- ④ 문법과 형태론, 동사론에 관련된 언어학 분야와 세부사항인 자음전위에 대해 많은 사항을 기록하였다.
- ⑤ 『키타프 알 아인』과 부합되는 내용들을 간결한 문체로 설명하였고, 시가와 순수 아랍인들의 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례들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편찬방식들을 종합해 볼 때 알 자우하리가 어휘의 설명방식에 있어 새롭게 시도한 것은 없지만, 아랍어사전편찬사상 최초로 단어의 모음부호와 기타 정서상의 기호를 표기하기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사전 역시 오늘날 학자들에 의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비평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문법적 구별부호의 잘못된 기록(Al-taṣhīf), 자음의 오기(Al-taḥrīf), 시가의 잘못된 인용과 혼란스러운 자료정돈 등이다. 문법과 형태론상의 오류도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아랍어 알파벳에서 마지막 자음인 /waw/와 /ya'/를 잘못 분류한 것은 주된 비평의 대상이다. 또한 알 자우하리가 사전 편찬을 정확한 어휘의 기록으로만 국한시키는 과정에서 지나친 생략을 하였다는 점도 비평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사하흐』는 일관된 체계로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어에 미숙한 초보자에게 유용한 사전으로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특히 그 편찬 방식은 후대 주요 사전 편찬학자들이 많은 모방을 하였던 방식으로 아랍어 사전편찬학사에서 이 사전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다. 이 사전의 주석으로는 아부 알 까심 알 파들 븐 무함마드 알바샤리('Abū Al-qāsim Al-faḍl Bn Muḥammad Al-Basharī, ?-1052)가 쓴 『하와쉬 알 사하흐(Hawāshī al-ṣaḥāḥ)』, 알리 븐 자으파르 알 쉐쿨리('Alī Bn Ja'far Al-suqūlī, 1041-1121)가 쓴 『하와쉬야트 알 사하흐(Hāshiyat al- ṣaḥāḥ)』 등이 있다.

2) 『리산 알 아랍(Lisān al-'Arab)』

『리산 알 아랍』의 저자는 무함마드 이븐 무카람 이븐 만주르(Muḥammad Ibn Mukarram Ibn Manzūr, 1232-1311)⁹⁾이다. 튀니지에서 출생한 그는 오랫동안 맘룩(Al-mamlūk)통치자의 서기로 근무하였고, 한때 트리폴리에서 판사생활을 하다가 카이로에서 말년을 보냈다. 그는 놀라운 암기력의 소유자로서, 공무원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주요 저서로는 『무크타르 알 아가니(Mukhtār

9) 이하 이븐 만주르로 부르기로 한다.

al-'Aghāni』, 『무크타사르 무프라다트 이븐 알 바이타르(Mukhtaṣar Mufradāt Ibn al-Baiṭār)』 등이 있다.

『리산 알 아랍』은 이븐 만주르의 명성을 전 아랍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전으로 8만 여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으며¹⁰⁾, 동시에 그 통계가 어려울 만큼 많은 파생어를 담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아랍어 사전으로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완벽한 사전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븐 만주르는 유용한 사전 편찬을 위해서는 그 내용과 정돈방식이 모두 완벽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이전의 주요 사전들을 재 정돈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함께 기록한 『리산 알 아랍』을 완성하였다. 이 사전의 편찬방식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진다(Muhammad 'Aḥmad Abū Al-faraj 1986, 28-30).

- ① 알 자우하리의 『알 사하흐』가 등장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뒤에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은 각운 식 단어배열법을 따랐다.
- ② 시가와 희귀한 용어들, 문법에 관심을 기울였고, 인용된 자료의 원저자명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각각의 자음들의 특질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신체질병에 대한 의학용어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학사전이 백과사전의 일종이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븐 만주르가 참고로 한 사전은 『타흐딕 알 루가』, 『알 무흐캄』, 『알 사하흐』 외에도 이븐 바리(Ibn Bārī, 1106-1187)의 『하와쉬(Hawāshī)』, 이븐 아씨르(Ibn 'Athīr, 1150-1210)의 『알 니하야(al-Nihāyah)』 등인데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잘못된 기록까지도 포함되었다.
- ④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꾸란, 하디스, 시가, 격언 등에서의 용례를 많이 인용하였다.
- ⑤ 이븐 만주르는 사전이 모든 어휘들을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표제어에 관련된 모든 파생형을 기록하였다.

알 칼릴 이후 아랍어사전은 비록 어휘 전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어휘의 기본 형태를 이루는 모든 어근들의 기록에 전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리산 알 아랍』은 저자의 능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어근들과 파생형, 사용되는 단어와 소멸된 것들을 포함하여 용례의 설명까지 기록한 사전으로서, 단지 언

12) 가장 많은 표제어를 담고 있는 사전은 알 주바이드의 『타즈 알 아루스(Taj al-'arūs)』로서 12만개의 표제어를 담고 있다.

어학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아랍학문과 예술 전반적인 분야의 보고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완벽함에 가까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 역시 몇 가지의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 우선 방대한 자료의 기록으로 인해 단어배열방식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그 예로 이른 만주르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용례를 인용하였고, 이 용례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단어의 설명을 위해 공간을 소모하는가 하면 본래의 주제에서 벗어난 장황한 내용들을 나열하였다.

『리산 알 아랍』은 아랍문화의 전반적인 조감도로서의 가치를 지닌 사전으로 영국의 유명한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가 가지는 영향력에 견줄 만큼 주요 참고문헌으로 간주되고 있다(Husayn Naṣār 1998, 82). 그 중요성이 대단한 만큼 많은 학자들이 이 사전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또한 사전의 자료들을 어근의 첫째 자음에 의거하여 재편집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작품들 중에는 아흐마드 타이무르 바샤(Aḥmad Taymūr Bāshā, 1871-1930)의 『타스히흐 알 리산(Taṣḥīḥ al-Lisān)』과 압둘라 이스마일 알 사위(ʿAbd Al-Ilāh ʾIsmāʾil Al-sāwī, ?-?)의 『타흐딕 알 리산(Tahdhīb al-Lisān)』 등이 있다(Rāmil Yaʿqūb 1992, 117-118).

IV. 결론

지금까지 아랍어 사전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초기 편찬방식을 중심으로 대표적 사전들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단계별로 고찰하였다. 8세기 『키탃 알 아인』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 아랍어 사전은 여러 발달과정을 거쳐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초기 단계로서 제 1단계, 알 칼릴의 조음점에 따른 알파벳순과 순환 식 단어 배열 방식의 단계로서 『키탃 알 아인』, 『타흐딕 알 루가』 등의 사전이 편찬되었다. 제 2단계, 일반적인 알파벳 순의 순환 식 단어 배열 단계로서 『알 잠하라』, 『알 마까이스』 등의 사전이 등장하였다. 제 3단계, 단어의 각운식 배열 단계는 『알 사하흐』를 비롯하여 『리산 알 아랍』 등의 주요 사전들이 나타났던 단계이다. 『키탃 알 아인』은 최초의 아랍어 사전으로서 아랍 언어학자들로부터 아랍어의 기록과 성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본격적인 아랍어 사전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타흐딕 알 루가』, 『알 잠하라』, 『알 마까이스』, 『알 사하흐』, 『리산 알 아랍』 등의 사전이 이전에 편찬된 사전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각각 독특한 편찬 방식을 선보이며 등장하였다. 이 사전들의 편찬 방식은 일반적 알파벳순의 순환 식 단어배열과 각운 식 단어배열 방식으로서 아랍어 사전학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 아니라 이후 보다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사전 편찬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 주제어 : 아랍어 사전학, 사전, 조음점, 순환식 단어배열, 각운식 단어 배열

K C I

◁ 참고 문헌 ▷

- 남기심 외(1989), 『사전편찬학연구』, 제1집, 서울, 한신문화사.
- 윤은경(2010), “아랍어 사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20-1집, 259-280.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서울, 태학사
- 정지영(1988), 『사전편찬과 문법정보의 필요성』,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d al-Sāmi Muḥammad ‘Aḥmad(1994), *Al-ma‘ājim al-‘arabiyyah*, Cairo, Dār al-fikr al-‘arabi.
- A. G. Chejne(1967), *The Arabic language its role in history*, Minneapolis.
- ‘Aḥmad Tahir Ḥusayn(1987), *Min naẓariyāt al-iktimāl al-lughawī ‘inda al-‘arab*, Cairo, Dār miṣr lit-tibā‘ah.
- Dār al-Maṣḥriq(1996), *Al-Munjid fī al-lughah wa al-‘a‘lām*, Lebanon.
- Fontenelle, Thierry edt.(2006), *Practical Lexic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 Ḥusayn Naṣar(1998), *Al-mu‘jam al-‘arabī naṣḥa‘atuh wa taṭawwuruh*, Cairo, Dār miṣr lit-tibā‘ah.
- ‘Ibrāhīm Muḥammad Najā(1990), *Al-ma‘ājim al-lughawīyyah*, Cairo, al-Hay’ah al-miṣriyyah al-‘āmah lil-kitāb.
- J. A. Haywood(1965), *Arabic lexicography*, 2nd. Ed, Leiden, Netherlands.
- Jibrān Mas‘ūd(1998), *Al-rā‘id 1.2*, Beirut, Dār al-‘ilm lil-mallāyīn.
- Ḳhalīl al-Jurr(1993), *Lārūs*, Paris, Maktabat Lārūs.
- Muḥammad ‘Aḥmad ‘Abū al-Faraj(1986), *Al-ma‘ājim al-lughawīyyah fī daw’ dirāsāt ‘ilm al-lughah al-ḥadīth*, Cairo, Dār naḥḍah al-‘arabiyyah.
- Muḥammad ‘Abd Al-ḥāfiẓ al-‘Aryān(1984), *Al-ma‘ājim al-‘arabiyyah al-mujannasah*, Cairo, Dār al-muslim.
- Rāmīl Ya‘qūb(1992), *Fiqh al-lughah al-‘arabiyyah wa kḥaṣā’iṣuḥa*, Beirut, Dār al-‘ilm lil-mallāyīn.
- Versteegh, K.(1997), *The Arabic Languag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Versteegh, K.(1998), *Landmarks in linguistic thought III - The Arabic*

linguistic tradition, Taylor & Francis Ltd.



윤은경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이메일 nabilayun@hanmail.net
전화번호 010-9121-2452

논문접수일 2011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2011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8일

K C I